

홍승희 칼럼

절반의 소리

국무총리의 성과 정치인의 자질

전국 이래 최초의 여성 총리 지명과 인준을 둘러싸고 성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무성 의원이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라는 토를 달며 대통령 유고 운운하고 일단 유사시의 총리가 여성이어서는 군을 통솔할 수 없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그 발언에서는 물론 성차별만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멸절하게 국정을 수행중인 대통령의 유고 운운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미국 정보기관이 그런 정보를 내보냈더니 더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한나라의 정치인, 그것도 차기 대통령 후보를 측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그런 정보에 매달려 국민적 자존심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이냐는 문제가 큰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 나라 주류 언론들은 그러한 사대주의

에 별다른 이의제기조차 않는다. 진보적 언론들이 몇몇 문제를 삼는데 그치고 있다. 미국의 개입 운운하는 그의 발언을 지식인 사회가 오히려 몸조심하라는 미국의 경고로 받아들인 탓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성차별 발언은 그나마 거론하는 매체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래서 여성언론이 필요하다. 김의원의 발언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그러나 가정 바깥에서는 여전히 소수자인 여성의 현실을 실감케 한 동시에 여성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모두 똑같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 나라 다수 남성들의 의식을 여지없이 노출시킨 사건이다. 만약 이것이 성차별이 아니라 단지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를 다시 군부독재로 되돌리고자 하는 발상이

라고 몰아부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군 지휘관 출신이 아닌 그 누구도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대선 안될 테니까. 이런 발상에는 국가원수·군 통수권자라는 등식을 넘어 국가를 하나의 병영으로 간주하고 전쟁수행 능력이 지도자 최고의 덕목으로 각인된 군부독재 시대의 논리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또한 국가 안보는 전투력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냉전시대의 의식이 뼈속까지 스며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도자가 일단 유사시에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세계사에서 여성 지도자가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군을 통솔했는지 사례도 있으니 그 발언은 실상 국민적 감성을 자극, 우리의 상황에 위기감을 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발언이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으로서도 여성 유권자를 의식해서 여성 총리 인준을 거부까지 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성차별 발언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분명 배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저 뭔가 딱이라도 입에 물려주면 청얼대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였기에 사담처럼 가볍게 흘렸을 것이다. 바로 그런 무의식의 지배가 여성 문제를 그저 선거용으로만 이용하는 정치행태를 지속시켜온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는 물론 어느 한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는 아닐터이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한 정치인을 한국사회는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투표행위의 엄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편집주간 shh@womennews.co.kr

기/고

여성·공존·희망

2002년, 여성의 인권향상이라는 주제로 말문을 여는 여성활동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다른 했다. 다수의 남성들은 오늘도 여성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여성권이 아닌 남권을 외쳐도 될 만큼 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느냐고, 본원적인 억압인 체제를 보지 않으려는 여론신장론은 이기적인 일 뿐이라고 반문한다. 언 그렇가. 정말 우리 사회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보장되고 있는가. 가지 예만 살펴보자. 우리 나라 부부 10쌍쌍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며 남편 3명 중 1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를 구타하고 있다고 정폭력방지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 명백한 폭 범죄시하지 않는 경향, 가정사를 사적인 것 치부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가 되지 않은 가정폭력의 경우까지 합치면 가력 피해여성의 비율은 몇배에 달할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성폭담소의 200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29건의 성폭력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2000년에 2천307건에 비해 15.16% 증가한 수치 피해여성의 77.5%는 '아는 남성' 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여론신장론 자체가 불편하고 요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가정폭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성폭력의 위협이 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성매매 산업은 국가 장악·장려의 결과 날로 확장·발전하는 추 1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여성이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억압이 존재한다. 그것은 자와 자본가로 일컬어지는 계급이라는 이름 표현되기도 하고 빈부라는 이름으로도 표고 체제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된다. 많은 이

들은 여성의 문제 역시 계급문제, 빈부문제, 체제문제가 해결되면 자연 치유될 무엇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해도 완성되지 않을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가 존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진보'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남성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충분히 '주류' 로 비춰지는 운동계와 학계의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잘 표현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100인위원회' 활동과 '노력하지 않는 마초 김규향 사건' 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여성억압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회의 핑크빛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체제 전복의 꿈을 꾸다해도 함께 가야 할 2분의 1의 동지, 그녀들의 삶이 투영되지 않은 예언과 꿈은 허상일 뿐이다. 아니,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 되고 말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맞지 않을 권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 몸을 팔리지 않을 권리,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 노동시장에서 퇴출 순위 1위가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 않는 수많은 예언과 꿈들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 없다. '너' 와 '나' 가 '우리' 가 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들 공동체의 모습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꿈꾸고 실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문제를, 여성현실을 지금 바로 이 곳에서 안고 가야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바로 '나의 문제' 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희망' 의 시작은 '공존' 이다.

박수진 madonnaq@hanmail.net 군포여성민우회 실무자

■ 박희정의 세상읽기 (khomi@orgio.net)



'二人之下 萬人以上' 아내를 남편보다 밀어 다. 그러나 총리가 여자면 총리는 남편보다 밀이다?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을 신문에 버젓이 게재하다니, 요즘 세상에 이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성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은 못 참겠다는 것이군요.

통신원 칼럼

'우리' 보다 더 좋은 말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오빠... '우리' 사회는 '우리' 라는 말에 무척 익숙하다. 영어로는 my(나의) mother, my family라고 하지만 이걸 한국어로 내 엄마, 내 식구라고 해석하면 뭔가 어색하다. 영어에서 나를 소유격으로 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인 우리 말에서는 '우리' 가 앞에 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나' 가 '우리' 가 되고 나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서구보다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인지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 주는 우리라는 단어가 요즘 광고에서 무척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전에 모 기업은 '또 하나의 가족' 이라는 컨셉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란 카피를 유행시켰다. 모 은행은 아예 이름을 우리은행으로 바꾸더니 우리 나라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으로 현재 '우리' 로 잘 나가는 기업이 됐다. 여기서 '우리' 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며 가족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물론 나도 내 가족을 좋아하며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기도 하다. 하지만 가족은 '언제나 행복해야 하며 그것이 늘상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지는 의문이다.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공동체 비전향 장기수분들이 함께 모여 살던 만남의 집 공동체

를 우리 사회가 '올바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지 모를 일이다. 단순히 '우리' 로 묶이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부당한 억압을 두고 저항하는 이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 함께 무언가를 향유하고 즐기는 것. 무척이나 멋진 일이며 어디에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가 그 범주나 대상이 무척 애매한 말이라는 것이다. 보통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우리' 라는 단어는 가족주의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고 그 경계의 바깥에서 있는 '너희' 와 편을 가르는 '우리' 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남이, 우리 경상도가 못치야, 우리 식구가 최고 이런 말을 말이다. 경상도가 못치면 다른 지역은 배제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이 최고면 그 기준에서 다른 이들은 남/너희/그들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각각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서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관계망 말이다.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유로 묶이지 않는 그런 함께,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다. 말만 좋은 이상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꿈 좀 크게 꿰보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일까 싶다.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우리, 너희와 우리로 편을 나누지 않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좋은 말을 생각해본다.

김이 정민 2gal@dreamwiz.com

주 금요일 발행 여성신문 구독료 1년 5만원 1부 1,000원

기독측 신청 (02)318-2791 편집국(02)318-2797 www.womennews.co.kr

리안 GO WN 유니텔 GO WNEWS 하이텔 · 나우누리 GO WOMENNEW e-mail: woman@womennews.co.kr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3층

여성신문 전국지사

북 (054)338-0500	대전 (042)221-0160	부천 (032)613-4643	울산 (052)245-1556	파주 (031)946-3546
양 (031)908-4742	동두천 (031)861-1518	수원 (031)239-2210	의정부 (031)877-6239	평택 (031)666-5272
주 (062)524-4123	마산 (055)282-9605	수지·용인(017)212-5191	이천 (031)638-5757	포천 (031)531-3250
·남양주 (031)591-7469	목포 (061)278-0433	안산 (031)411-4274	전주 (063)254-2663	
구 (053)751-2240	부산 (051)702-1003	안양 (031)397-9107	중랑 (02)496-4999	

'여성의 창' 지면에 실린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